

기록관련 국제기구 지식정보원 (노영희 엮음, 한국학술정보, 2008)

남 경 호*

기록물관리법이 제정 및 운영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국내 기록관리 영역은 공공영역 이외에 점점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IT영역, 보존 관리 영역 등에서 기록관리 학문과 실무가 통용되고 있으며, 민간 영역에서도 과거 역사관 혹은 기념관 설립·운영에 국한되었던 기록관리 영역이 점차 지식/정보/업무관리 분야로까지 진출하였다. 대학기록관 협의회가 만들어져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대학기록관 모형을 고민하고 있으며¹⁾, 최근에는 유형/무형 문화유산 영역에서도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그 외에 기록관리 실무자들은 스스로의 권익과 의무를 확인하고, 실무에서의 고민을 함께 나눌 전문가협회를 설립²⁾하였다. 이는 기록관리 영역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더 많은 기록

* 국가보훈처 기록연구사

- 1) 2005년에 설립하였으며, 현재 40개가 넘는 국공립·사립대학 기록관·도서관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www.uarchives.or.kr)
- 2) 2010년 기록관리의 전문성 확립, 기록의 가치 수호, 민주주의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사명으로 출범하였으며, 현재 공공기관, 대학, 민간 영역의 기록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www.archivists.or.kr)

관련 기관, 단체, 사람들이 활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너무 빠르게 국내에 기록학과 기록관리 실무가 정착·발전하였기 때문일까? 필자는 학교에서 기록학을 공부할 때도, 현장에서 기록관리 실무를 담당하면서도 항상 기록관리와 관련한 물음표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외국의 기록관리 이론과 실무가 국내에 많이 소개되었고, 또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수용 방법은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 서구에서 기록관리의 기본 단위로 사용하는 시리즈, 파일의 개념이, 국내에서의 기록물철, 단위과제(단위업무) 단위에 그대로 적용 가능한가? 기록물의 평가 기준의 경우, 1차적·2차적 가치 혹은 거시평가 등의 외국의 평가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국내 기록관리 실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외국의 경험을 통해 해결 가능할까?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NARA, PRO 등 서구의 대표적인 기록관리기관 혹은 ICA, SAA 등의 기록관리 관련 단체 웹사이트를 이리저리 기웃거렸지만, 단편적인 정보만을 얻을 수 있었다.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지극히 이론적이거나 실무적이었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를 국내 현실에 적용시키기는 더욱 힘들었다. 분명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을 해결해줄 그 무엇이 있을 텐데...라는 아쉬운 생각만 들었다.

이런 고민은 새로 시작하는 분야에서는 더욱 크다. 가령 사진기록물과 영화기록물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지 최근 관심이 크지만, 국내 현실에 부합되는 사례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음악, 예술, 문화 등의 무형의 기록들은 기록관리 영역에서 과연 포괄할 수 있을까 의구심마저 들 정도다. 외국에 몇몇 사례들이 간혹 소개되고는 있지만, 단편적인 지식만으로는 기록관리 업무 전체 프로세스 혹은 기록관리기관 전체상을 짐작하기가 어렵다.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사례를 찾아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기록관련 국제기구 지식정보원」은 기록관련 세계의 기구 및 단체, 다양한 기록류, 그리고 각종 관련 정보와 정보원을 포괄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ICA와 같은 국가 단위의 기록관리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기구도 다루고 있으며, 영화, 음향, 고서적 등의 분야별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기구도 설명한다. 또한 전쟁 혹은 자연재해 등으로 유실 위기에 빠진 기록의 구난과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도 설명한다.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매우 많으며, 아주 유용하다.

이 책은 총 3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 번째 장은 기록 및 기록관리 이해를 위한 기초 지식을 담고 있다. 기록관리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기록이란 무엇이며, 기록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또 기록을 관리하는 기록전문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기록관리 실무자 이외에 기록관리에 관심있는 일반인과 학생들도 이 책의 독자층으로 생각하고 가장 기초적인 내용으로 서두를 시작하였다. 비록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기록학 및 기록관리 영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들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 혹은 전공자들도 관련 개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두 번째 장은 국제기구와 국제기구 정보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국제기구는 ‘회원국들의 공통된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셋 이상의 주권국가들 간의 협정에 의하여 창설된 것으로서, 기구 내의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특정 기관을 지는 공식적이고 계속적인 조직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국제기구에서는 ‘문서류(documents)와 ‘출판물(publications)’로 대표하는 정보원이 생성되며, 이런 정보는 관련분야 연구자들의 유용한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기구 정보원은 입수 또는 수집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치 있는 정보원을 얻을 수 있는 배포처, 판매처 등을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된다. 이는 기록관리 분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책의 대부분의 내용을 구성하는 세 번째 장은 기록관련 국제기구 소개 및 정보원을 설명하고 있다. 40개의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북미, 유럽,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기록 관련 국제기구를 소개하고 있다. 관련 기구·기관·기록관의 안내서와 보고서, 홈페이지, 홍보자료, 연감, 통계자료 등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였고, 일부 내용은 전화나 전자우편을 통한 의뢰와 상담을 통하여 보충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록관련 국제기구의 소재(주소, 전화,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성격, 설립연혁, 설립목적, 운영지침, 조직체계, 주요활동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국제기구가 생산·소장·제공하는 정보원에 대한 배포정책, 종류, 주제분야, 제공형태(출판물, 간행물, 데이터베이스, CD, 소책자 등)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기록·지식정보원 시리즈 중의 하나이며, 현재 「기록관련 주요기구 지식정보원」, 「국가기록관 지식정보원」, 「세계의 주요기록관 지식정보원」이 출간되었다. 외국의 다양한 기록관리 기관 및 기구를 소개하고 있는 이런 책들은 학술 목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며, 해당 기관의 실무 사례 정보들은 국내 기록관리 기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단순히 기관의 정보만을 나열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지만, 책에서 소개하는 기관을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의 가치는 독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친절하게 필요한 정보를 세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가 어느 곳에 있는지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책에서 설명하는 40개의 국제기구 모두를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다. 독자의 관심분야나 실무분야에 도움이 되는 국제기구가 1개라도 있으면 당사자에게는 그 무엇보다 유용한 책이 될 것이다.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유용하게 사용하길 기대한다.